
2020년 제41호 방송심의보고서

2020. 10. 2. ~ 10. 8.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길 따라 인문학		
방송일자	2020. 10. 3.	시청률	0.018

【총 평】

경북 문경시의 험난한 ‘토끼비리’ 길을 통해 서민들의 인생사와 한양 천리를 오가는 길손의 무게를 담아내 눈길을 끌었다. 영남지역에서 서울로 연결되는 옛길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험한 길이라는 ‘토끼비리’는 토끼가 도망가는 길을 따라 길을 냈다고 한다. 토끼비리는 영남대로 관문성인 석현성 남문에서 영강을 옆을 따라 이어지는 약 500m 정도의 길을 말한다. 길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그 길은 삶을 살기 위한 길이었음을 역사적 자료와 고찰을 제시하며 문경지방의 옛길을 가며 문경지방의 주요 명소 부분도 함께 유래를 살펴보고 토끼비리 가는 길을 고찰하였다. 삶이 길이 되었던 지방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 중 문경새재를 지나는 영남대로를 거쳐 토끼비리로 향하는 길에 관한 인문학적 기행 프로그램이었다.

【구성 및 내용】

지방에서 한양으로 가기 위한 9개의 옛길중에서 영남대로 부산에서 부터 출발하여 대구, 문경새재를 거쳐 충주, 용인, 서울로 도착하는 길이었는데 그 가운데 절벽을 깎아 험난하고 위험하게 넘어야 했던 문경새재의 토끼비리까지의 옛길을 따라 기행하면서 문경 지방의 역사적 문화재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고문서에 적혀 있는 토끼비리의 지명과 유래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을 먼저 소개했다. 토끼비리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 잡은 하늘재를 둘러보고 망당이 사기요에 들러 김영식 사기장과 함께 이 곳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송림 고분군으로 향했다. 남문과 고모산성 등을 둘러보고 성황당으로 향해 성황당의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옛 보부상과 나그네들이 주로 머물던 주막에 들러 그들의 모습을 회상했다. 토끼비리에 도착해 옛 문헌들을 다시 한 번 살피고 진도 아리랑을 들으며 길과 역사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다.

토끼비리는 영남대로 중 가장 험난한 길로 알려져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기록되어 있는 등 역사적 의의가 큰 옛길로 길에서 내려다보이는 영강과 맞은 편 경관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조망을 형성하고 있다. 문경새재에서 토끼비리로 가는 길중에 만나는 석현성, 진남문, 조선시대 백자 등 예술품을 살펴보고 고모산성을 거쳐 성황당과 주막을 통해 토끼비리로 향하는 과거의 모습이 느껴졌다.

성황당은 나그네가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곳이자 지방과의 경계를 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의 방향적 지표를 제시해 주었고 성황당 주변의 돌무덤은 나그네들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간절함을 빌기 위해 쌓는 소원 돌맹이가 많았다는 유래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주막에 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위해 김홍도 및 당시 화가들이 주막의 모습을 주제로 그린 그림을 참고자료로 제시해 흥미를 이끌어냈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 소리		
방송일자	2020. 10. 3.	시청률	0.010

【총 평】

‘포천, 가을을 부르는 소리’는 경기도 최북단에 있는 포천시의 가을 풍경과 그 속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잘 채집돼 안방에서 가을 속 자연의 소리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농촌 들녘을 배경으로 깨 터는 소리, 키질 소리, 벼이삭이 바람에 일렁이는 소리, 사과 한 입 베어무는 소리, 구성진 노동요 소리는 오랜만에 듣는 고향의 소리였다. 이 밖에 계곡의 맑은 물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소리, 청아한 귀뚜라미 소리, 폭포 물줄기 소리 등이 자연의 소리가 잘 살아났다.

특히, 경기도 무형문화재 5호로 지정된 포천 농요 메나리를 채집하고 들려준 부분은 사라지는 노동요 전수와 보존차원에서 의미가 큰 구성이었다. 또, 황금 들녘을 배경으로 포천메나리전수관 회원들이 주거니 받거니 노동요를 이어가는 모습에서 아련한 향수를 느낄 수 있었다.

【구성 및 내용】

‘포천, 가을을 부르는 소리’는 높은 산과 굽이치는 물줄기는 물론 풍요로운 곡창지대이며 우리 소리의 깊은 뿌리가 살아있는 곳이기도 한 경기도 최북단 포천시를 찾아 풍요로운 포천의 가을 소리를 만나보았다. 명성산의 억새밭과 개울물, 아트벨리, 영북면의 사과 베어무는 소리, 그리고 구전되어 내려오는 포천메나리 소리를 전해주었다.

포천은 명성산에서부터 시작된다. 명성산은 가을에 많이 찾는 곳으로 해발 1000m 정도의 산으로 산세도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곳곳의 개울물이 시원함을 더해준다. 흐르는 물에도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산에서 조용히 듣는 개울물 소리는 소곤소곤 말을 거는 느낌으로 전해진다. 명성산을 두시간정도 올라가면 넓은 구릉이 펼쳐지는데 명성산 억새밭이다. 바람과 함께 전해지는 억새밭의 소리는 많은 감정을 전해준다.

2006년 개장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포천 아트벨리는 채석장이었지만 지금은 호수로 꾸며졌다. 당시 전국의 3대 화강암 산지 중 하나였다. 청와대, 국회의사당 등의 건물에 이곳 포천석이 활용되었다.

포천의 사과는 지금 한창 잘 익어 수확철이 다가왔다. 지구 온난화로 사과재배지가 점차 북부로 올라오는 가운데 포천은 사과재배지로 적합한 곳이 되었다.

포천메나리전수회관에서는 오랜 전통의 구전농요, 포천 메나리 소리가 들려온다. 포천메나리는 논을 맬 때 불렀던 농요로 다섯조를 편성해 노래를 주고받으며 완성된다.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창법이다. 포천 메나리 농요는 논을 맬 때 부르는 것으로 가을 들녘의 풍요로움을 상징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소재였다. 농부들이 들녘에 나와 메나리를 부르는 설정은 잘못하면 작위적으로 느껴지기 쉬운데 자연스럽게 연출을 해서 들녘에 익어가는 벼와 분위기가 잘 어우러졌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10. 3.	시청률	0.113

【총 평】

여러분의 북마크는 ‘추석특집-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이산가족’은 이산가족의 애틋함을 보여준 방송이었고, 통일부에서 이 분들을 대변하는 과제와 추진 중인 사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산가족의 마음을 대변한 해금 소리로 프로그램 시작을 알리면서, 이산가족인 김관국 할아버지(86세)를 모시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나눴다. 이산가족 고향화로 인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산가족 상봉 추진 이유와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신개념 언택트 상봉, 복잡한 한반도 정세 속 이산가족 상봉 기대 등을 김지영 통일부 이산가족과 사무관과 함께 살펴보았다.

【구성 및 내용】

김관국 할아버지는 2019년 3월 22일 9회 ‘그리운 편지’ 코너, “그리운 소식은 언제쯤 올까요?”에 출연했던 이산가족이다. 오늘 방송에서도 당시 발언한 동생들과 말탄 추억, 잘 생긴 남동생에 대한 기억, 1983년 KBS 이산가족 찾기 방송 출연과 신문 인터뷰까지 애끓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부모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되새김했다.

16살 때 피난 나와 70년 평생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산가족 1세대 김관국 할아버지의 이산가족이 된 사연,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 녹두지짐이, 부르다 사무치는 보고픈 어머니 이야기, 나이차 많은 친동생 관후와 금순이에 대한 그리움, 이산가족 상봉이 마지막 소원, 고향 노래로 북녘땅의 가족을 추억하였다. 특히, 상봉의 희망을 놓지 않고 동생들에게 죽지만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자신도 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100살까지 살아야겠다는 말씀들이 모두 우리 민족의 아픔으로 느껴졌다.

소해금 대한민국 1호 연주가이자 이산가족을 둔 박성진 연주자의 배경음악이 이산가족을 향한 그리운 마음을 배경음악으로 구슬프게 느껴졌다. 부모 형제와 생이별하여 생사를 모르며 70여년을 살아온 김관국 이산가족 1세대 어르신이 부른 ‘고향설’은 한많은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전해지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다시 한번 자아내게 하였다. 소해금 연주자 박성진씨의 연주에 맞춰 할아버지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애잔하게 했다.

단박톡은 ‘이산가족 상봉 추진, 주어진 과제와 이산가족 성사 필요성’에 대해 김지영 통일부 이산가족과 사무관과 이야기를 나눴다. 어려움 속에도 이산가족이 만나야만 하는 이유 등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외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통해 이산가족의 아픔을 보듬는 노력을 담았다. 특히, 서신교환, 생사확인, 제3국을 통한 만남 등을 추진해 성사시킨 사례와 최근에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등을 통해 언택트 상봉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0. 10. 3.	시청률	0.000

【총 평】

‘민족일보 조용수사건’은 1960년대초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쓰고 군사정권에 의해 31세에 사형 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살펴보고 시대적 배경에 의해 한 언론인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실을 재조명함으로써 역사적 교훈을 일깨운 기획이 탁월했다. 조용수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취재해온 원희복 전 경향신문기자(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가 조용수 사장의 당시 삶의 궤적을 찾아가는 탐사보도 형식의 구성이 돋보였다. 또한, 창간당시의 배경, 연속기획물, 사설 등의 내용과 논조를 다른 신문과 비교 분석해 특별히 북한에 동조한 뚜렷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혀 내 설득력을 높였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조치와 함께 국가에 대해 사과와 명예회복 권고를 내리고 법원에서도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했다는 점이 소개돼 의미를 더했다. 특히, ‘총에 꺾인 펜’으로 불리는 민족일보 폐간과 조용수 사장 사형에 대해 “군홧발에 짓밟힌 희생”, 우리가 지켜야할 역사적 가치는 무엇인가?”를 묻는 마무리 메시지가 깊은 여운을 남겼다.

【구성 및 내용】

조용수라는 한 젊은 언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시대적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특히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민족일보’의 실체에 대해 자세하게 밝힘으로써 한국 언론사의 빈 공간을 채웠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전 경향신문 원희복 기사를 프리젠티어로 세워서 내용을 전개해 나갔는데 ‘조용수와 민족일보’라는 전기를 썼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설득력 있는 설정이었다. 또, 죽음의 부당성을 파헤치는 내용과 민족일보가 추구했던 지향점에 대한 설명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내용이 나뉘었는데 서로 따로 놓지 않고 한 줄거리에 엮일 수 있도록 한 구성이 돋보였다. 이 밖에 당시 민족일보 기자 출신인 김자동 선생(92세)을 찾아가 당시 상황과 배경, 문제점을 인터뷰로 담아낸 구성이 다큐성과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5.16 쿠데타라는 야만적 시대상황과 조용수라는 젊은 언론인의 죽음에 대한 탐구 그리고 조국의 미래를 고민했던 민족일보라는 진보언론의 가치를 재조명해낸 내용적인 다큐였다. 원희복 기자가 서대문형무소 곳곳을 둘러보면서 조용수 사장이 수감되기까지의 상황을 설명한 부분은 현장의 느낌을 잘 살렸고 또 직접 민족일보 관계자를 찾아 밀도 있는 인터뷰를 한 부분 역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민족일보’가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서 규정한 사회단체가 아닌 언론기관이었다는 점을 강조해 당시 법률 적용이 얼마나 자의적이었는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광야의 소리’와 ‘농촌의 인상’ 그리고 ‘가고파라 내 고향’ 등의 기획 기사를 통해서 ‘민족일보’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잘 느낄 수 있었다.

프로그램	밥보다 법		
방송일자	2020. 10. 4.	시청률	0.001

【총 평】

‘충간소음 사건사고의 모든 것 이럴 땐 이렇게’는 코로나19 시대에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등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늘어나고 있는 충간소음과 관련한 생활법률을 알아보았다. 특히, 충간 소음에 대한 분쟁 해결 방법, 증거수집 방법, 주의점 등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해결방법을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한 진행이 시청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이밖에 충간소음 피해 상담에서는 충간 소음 실제 영상이 증거로 제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뤄져 몰입감과 흡인력을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 시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충간소음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청소기, 세탁기, 발자국 소리 등 생활 속 소리들이 이웃 간 많은 갈등을 유발한다. 심할 경우 이웃을 폭행하는 일은 물론 살인, 방화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올 1월에 비해 3월에는 소음중재신청 건수가 약 6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수업, 재택근무증가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충간소음으로 일어나는 분쟁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 사고를 중심으로 소개해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었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방법을 제시한 것도 좋았지만,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상호이해와 지혜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고 올바른 방향의 메시지였다.

충간소음 관련 다양한 사건·사고를 소개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으며, 충간소음에 관한 법률 정보를 전해 유익했다. 충간 소음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와 관련시켰으며, 충간 소음 기준과 보복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판결 사례 등을 제시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다. 충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보복 등으로 폭행을 당했을 시 진단서, 치료받은 기록 등 폭행을 입증할 증거 등이 필요하다. 이런 폭행을 당했을 경우 상해죄로 형사소송이 가능하며, 폭행 및 피해사실을 입증한 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하다. 인근 소란죄는 주택가 등 평온한 곳에서 고성방가, 확성기 사용,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행위 등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처벌하는 죄다. 폭언과 폭행 그리고 협박 등의 행위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 충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대면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내용증명 등 다른 의사 전달 방법을 찾을 것을 주문했는데 꼭 필요한 조언이었다고 생각한다. 또, 부산과 부천의 피해 사례를 전화로 연결해서 피해자가 직접 찍은 영상을 보여주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는데 공감이가는 대목이 많았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자치규약을 만들어서 분쟁을 줄여나가는 사례를 소개했는데 상호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10. 4.	시청률	0.118

【총 평】

‘그림책 품은 귀촌생활! 내 꿈은 시골할머니’는 ‘그래그래’와 ‘감자꽃’의 저자로 귀촌 3년 차인 김미자·권이병부부의 아름답고 서정적인 삶을 담았다. 시골의 아기자기한 모습과 시골만이 주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잘 담겨졌고 그 속에 시골 책방이 존재하는 이유도 잘 부각되었다. 김미자씨는 회사를 퇴직하고 남편과 함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서 자연 속 7천 권의 그림책과 함께 귀촌 생활을 익혀가고 있다. 그림책 읽어주는 시골할머니가 되고픈 주인공 김미자씨는 조용한 도서관에서 시끄러운 도서관으로 개념을 바꾼 책 전문가이다. 서울에서 도서관장 겸 책방 주인을 했던 아내 김미자씨는 남편 권이병씨의 퇴직금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살린 귀촌인이자 그림책 서점 주인이다. 주인공 부부는 땅에서 인생을 배우고 자연에서 겸손과 희망을, 이웃에게서 지혜를 배우는 꿈꾸는 그림책 공간지기이다. 또한 부부는 그림책방 뿐만 아니라 북스테이 운영, 글쓰기 모임 등 특색 있는 콘텐츠를 운영 중인 창익가이다.

【구성 및 내용】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남편이 반려견과 산책하고 닭 모이를 주는 등 아침에 기상해서 시작되는 시골 생활의 소소한 일상을 담아냈다. 이어 아내의 시점에서는 책방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모습을 통해 책방의 실체를 소개했고 이 곳을 찾은 손님들의 모습을 통해 책방이 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밖에 책방 근처의 꽃밭을 소개하면서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일상을 강조했고 이곳을 찾은 다른 손님과 딸의 방문기를 그렸고 다 같이 모여 습작에 대한 토론을 하는 모습도 담아냈다.

시골 책방이라 작고 허름한 책방일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도서관만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고,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 하나하나도 매우 정성스럽게 소개가 되었는데 마치 책 한 권의 소중함을 아는 주인공 아내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다.

책방을 기준으로 주변 풍경과 일상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잘 담겨있었고 그러면서도 주인공 부부가 이 곳에 책방을 열게 된 이유와 손님들이 곳곳에서 강조가 잘 되었다.

책방 소개와 이 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야기속에 직접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장면 등을 강조했다. 책방을 형식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책방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천천히 풀어내 인상적이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나누는 대화속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아내는 주로 책방 관리를, 남편은 농사일을 맡고 있어 서로의 영역이 분명한 편이었는데 화면에서 이를 조화롭게 연출해주어 부담스럽지 않았고 서로 균형을 잘 맞추고 있었다. 직접 가꾼 꽃밭이나 배추밭도 소개가 되었는데 농촌의 일상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었지만 여기서 이웃과의 정도 강조가 되었고 무엇보다 책방에 다녀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

프로그램	슬기로운 취준생활 일자리센터		
방송일자	2020. 10. 4.	시청률	0.038

【총 평】

‘고객의 입맛을 잡아라! 푸드 슈퍼바이저’는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슈퍼바이저 직업의 세계를 알리고 취업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소개해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푸드 슈퍼바이저’가 무슨 일을 하는 직종인지 또 취업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과 자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 취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새로운 시도를 위한 노력과 ‘달려라 신입사원’과 ‘화상모의면접’ 등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코너들이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밖에 연봉과 근무시간 등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을 앞부분에서 먼저 언급하고 취업에 필요한 조건으로 내용을 이어간 것은 취업 희망자들의 궁금한 점을 반영한 구성이었다.

【구성 및 내용】

슈퍼바이저는 본부와 점주간의 소통창구로서 점주와 고객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상담자 역할에서부터 가맹점 매출을 증가시키는데 일조하는 조언자, 그리고 가맹점마다 맛을 균일화하게끔 해주는 교육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푸드 슈퍼바이저의 동선을 쫓아간 ‘달려라 신입사원’은 무슨 일을 하는 직종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었다. 입사 6개월 차 취업선배가 회사에서 하는 업무 내용과 연봉을 소개하여 구직자가 원하는 정보를 직접적으로 전했고, ‘나의 취업 합격 비법’이라는 선배의 사례를 제시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업계 대표와 취업선배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두려워 말고 도전할 것”을 주문했다.

‘선배의 하루’에서는 실제 가맹점주 등이 본사에 교육을 받으러 오고 반대로 가맹점에 점검을 나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푸드 슈퍼바이저의 일상을 제대로 알 수 있었다.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요리 관련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이라고 했는데 직종의 특성상 공감이가는 대목이었다. 이와 함께 SNS로 들어오는 즉석 질문을 받아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깊이감이 느껴졌고 프로그램의 성격 상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 채팅방 댓글 소통도 쌍방향 제작의도를 살리는 요소로 치킨을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나? 군 취사병 경력도 인정되나? 등 갖가지 질문이 나왔다.

화상모의면접은 대리체험이라는 요소를 잘 소화하고 있다. 지원자와 회사 대표가 화상으로 모의면접을 진행한 것은 긴장감을 높여 시청자가 정보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또한, 회사 대표의 질문을 통해 회사가 지향하는 인재상과 직업 철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지원자의 답변은 발상의 전환이나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푸드 슈퍼바이저는 조리교육을 하므로 기본적인 조리기술은 필수로 회사에서도 자격증 유무와 더불어 요리대회 수상여부도 본다.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10. 6.	시청률	0.030

【총 평】

이번 21대 정기국회 이슈 가운데 하나가 공정경제 3법 처리라는 점에서 ‘속도내는 공정경제 3법, 주요 내용과 추진 전망은?’은 시의성, 기획성 등을 충족시켰다. 공정경제3법이 이 시점에서 왜 필요한가를 중점적으로 살펴 당위성, 필요성을 제시해 주목도를 높였는데, 우리사회의 불공정한 경제질서, 수없이 존재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하기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와 함께 공정경제3법의 주요 내용을 짚어 구체적 골격과 핵심이슈를 분석해 설득력을 높였는데, 공정경제3법,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 공정거래법 개정,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 의미와 추진방안을 자세히 짚었다.

【구성 및 내용】

‘속도 내는 공정경제 3법, 주요 내용과 추진 전망’은 최근 이슈화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상법 개정, 금융감독법 제정안에 대한 내용을 전해주었다. 상법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다중대표 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전속고발제 폐지, 금융감독법 제정안에서는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비지주 금융그룹의 규제 포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특히, ‘공정, 균형’이라는 핵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법안의 취지나 정책 방향을 큰 그림으로 읽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공정경제 3법의 취지와 목적, 감사위원 분리 선임 제도 필요성과 추진 의미, 집단소송 남용에 대한 우려와 해소 방안 등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 돋보였다. 또한, 신한금융지주, 가습기 살균제 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언론사 반발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해 이슈 접근이 용이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과 법안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각 법안별로,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주주총회 이사 선출 시 감사위원 분리 선임 제도’, ‘전속고발권을 폐지한 공정거래법개정안’ 등은 과한 요구가 아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메시지를 전해, 정부정책을 국민에게 전하는 채널 특성을 잘 담아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로 지금까지는 기업들의 문제와 관련,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공소제기가 가능했으나 이번에 개정이 될 경우, 공정위뿐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도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중대표소송제로 모회사와 자회사의 묶여있는 기업 구조에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금융그룹 감독법의 제정으로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비금융그룹에 있어서는 금융그룹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들도 감독하겠다는 취지다.

알뜰신잡에서는 일상생활 속 트랜스지방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다뤄주었는데 트랜스지방의 주요 섭취원, 질병유발, 식품구입과 조리, 섭취시 주의점 등을 전해주었다.